



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충북 현장에서 ‘통합지원안내서’ 등 생명안전망 점검

- ‘천명지킴 현장소통’으로 취약계층 위기대응·범부서 협업사례 공유

- 국무조정실 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, 이하 ‘생명본부’)는 9월 8일(화)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, 지역 자살예방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다.

❖ 천명지킴 간담회 개요

- 일시·장소: 2026. 9. 8.(화) 10:00~12:00 / 충청북도청
- 참석기관: 충청북도, 충북경찰청·소방본부, 충북교육청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
- 주요 내용: 지역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, 현장 건의·애로사항 청취

-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정책 수립·시행 및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, 기관간 협업을 통해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충청북도는 '25.12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11개 부서와 교육청·경찰·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TF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등 범충청북도 차원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.
- 특히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·긴급복지·금융·채무조정·의료비·청년 지원 등 부서별 20개 사업을 엄선한 통합 지원안내서인 「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-내일을 잇기 위한 지원사업 모음집」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.

* 지원대상·신청방법·문의처 등 핵심 정보를 위기유형별로 구성하여, 도움이 필요한 도민과 현장 상담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히 찾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안내서

- 또한, 도내 공동주택 344개 단지 옥상 출입문 안내물 부착과 농약판매 시설 413개소 대상 음독예방 홍보 등 생활 속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.
- 송민섭 본부장은 “충북의 통합지원안내서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위기 당사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 경로로 연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”며, “중앙정부도 지역의 좋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현장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책임자	과 장	조성래 (044-200-6368)
		담당자	사무관	백재이 (044-200-6377)